

“시에 공식 있다면 공통분모는 사랑”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등단 12년만에 첫 시집 낸 이선에 시인

오랫동안 내면 탐색 작품으로 형상화

순천문학관 근무 “두번째 시집 준비”

“시에 공식이 있다면 그 공통분모는 사랑일 겁니다. 물 질만능과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서, 시는 사랑의 버튼을 가진 살아있는 여성이며 생명체이지요.”

시인은 시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다. 참신하면서도 독특한 상상성은 역시나 시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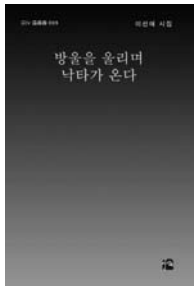
순천 출신 이선에 시인. 등단 12년만에 첫 시집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를 낸 시인은 “계으른 탓에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죽이다 늦게 시집을 낸다”고 했다. 등단도 늦은데다 작품집 발간도 늦은 것에 대한 ‘변명’ 아닌 ‘자책’으로 들렸다.

빠른 등단과 다작이 문학성을 담보한다거나 시업(詩業)의 본질을 전제하는 것은 아닐 터였다. 작품이 많지 않아도 문학사에 남을 땀어린 시를 쓴 이도 있고, 무수히 많은 작품을 써도 기억되지 않는 시인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시인이라는 직함을 탄 이들이 너무 많다)

“시를 찾아 떠난 목적지는 오로지 내 안으로의 여행이었다”는 말에서 시인의 창작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200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지만 “등단시인”이라는 꼬리표만 달았지 “당연히 나와야 할 시집을 못낸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배어 있었다.

기자는 최근에 첫 시집을 낸 시인과 대화를 했다. 시집을 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었던 터라 내심 궁금하던 차였다. 현재 순천문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인에게선 오랫동안 시를 품고 살아온 이의 내공이 느껴졌다.

“이번 시집은 ‘상상인’이라는 출판사에서 진행한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시집 공모가 계기가 됐어요. 현대서정시의 특성을 나름대로 살려 시를 쓴 것 같아요. 전반적인



주제라고 말하기엔 도드라지는 게 특별히 없지만 아마도 사물과의 대화나 거리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물과의 대화나 거리두기’는 오늘의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상됐다. 시인은 자신의 시 쓰기를 “시인으로서의 시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느 순간 “새알처럼 돌아나는 새로운 말들과의 교감”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 작품집은 오랫동안 내면으로 향한 여정을 지향한 시가 적지 않다. 그 대표작이 바로 표제시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이다.

“책꽂이 속의 산/ 깨어지면서 돌아오는 둥근 메아리/ 끼워 넣고 싶은 소리가 많은 날/ 지붕 바깥의 어느 바람일 까/ 걸지와 속지 사이로 휘몰리는 둥근 능선/ 낙타는 풀을 씹고 나는 피로 목을 축인다/ 사라진 과거는 무엇으로 살 아갈 수 있을까/ 묻기도 답하기도 전에 낙타가 온다/ 무릎을 굽혔다 펼치며…”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는 결국 시인 자신으로 치환된다. 최소한 자기 발자국을 남기며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여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승희 시인은 해설에서 “결국 삶은 저마다 외로운 싸움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심연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걸어 나 간다”며 “때 묻고 낡아가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며 성찰이며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방향성은 세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평한다.

그렇다면 이선에 시인은 언제부터 문학을 하게 됐을까. 시인은 “중고교시절 각종 글짓기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장래 꿈을 물으면 서슴없이 문학가”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심과 동심은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그렇다고 꿈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다.

결혼 전 시골 오지학교 국어교사를 하면서 주말이면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연말엔 ‘문학의 밤’도 열고 자작시를 등사기로 밀어 회지도 만들었다.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문학이란 미명 아래 전지가 내 것 마냥 멋모르고 보낸 그때가 문정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문학에 대한 목마름이 강렬했던 나머지 그리운 추억과 우울 모드로 빠져 지냈지요.”

당시 순천지역에 결성된 여성문학 동아리의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부족함을 느껴 대학원 문예창작과에 진학해 본격적인 시 창작수업도 받았다. 이런저런 문학 활동과 식지 않은 창작의 열정은 결국 나이 50이 넘어 신춘문예에 등단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순천문학관에 근무하게 된 것은 문학관이 시 문화예술과로 편입되면서였다. 방문객들에게 문학을 설명할 전공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2011년 개관한 순천문학관은 ‘국보급 소설가’ 김승옥을 위해 작가 자료관 옆에 집필실을 마련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에서 김승옥 선생을 보필하며 좋은 시를 쓰고 싶다”는 말에서 시인의 지적 지향점이 엿보였다.

“제가 있어 시의 본질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눈보다는 귀, 외연보다 내면의 소리에 먼저 몸이 열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정 시를 쓰고자 한다면 사물에 대한 인식의 갱신, 다시 말해 엄숙한 사명의식을 통과의례처럼 치러야 하겠지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극장 나들이 대신 거실에서 영화 감상을 했다. 몇년 전 관람한 음악영화 ‘비긴 어게인’ (Begin Again·2013년 작)이다. 개인적으론 ‘인생영화’로 손꼽는 작품 중 하나다. 영화는 남자 친구와 헤어진 싱어송라이터와 하루아침에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방출된’ 음반 프로듀서가 뉴욕의 허름한 카페에서 만나 음반을 만드는 과정을 밀도있게 담았다. 줄거리는 단순하다.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은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 분)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들른 카페에서 친구의 권유에 밀려 노래를 부르게 된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발걸음’ (A Step You Can't Take Back

가 왜 9를 쟁기냐”며 그레타가 반발하자 이런 답이 돌아온다. “원래 이 바둑이다 그렇다. 대신 일류 스타프들이 음반마케팅을 할 것이다.”

이에 그레타가 선택한 건 제작사와의 계약이 아닌, 아이튠즈였다. 단돈 1달러에 자신이 만든 음원을 아이튠즈에 올려 전 세계의 네티즌들에게 직접 ‘세일’하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의 ‘히든카드’는 폭발적인 다운로드수를 기록하고 영화는 해피엔딩을 맞는다.

‘비긴 어게인’을 지면에 소개하는 건 며칠 전 ‘구름빵’ 작가 백하나씨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소식을 접해서다. 권위있는 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유명동화 ‘말괄량이 삐삐’

‘구름빵’과 9대1

). 마침 카페 구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음반 프로듀서 덴(마크 러팔로)은 속삭이듯 감미로운 그녀의 노래를 듣게 된다. 평소 자신이 찾고 있던 목소리를 ‘발견한’ 그는 그레타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며 음반을 제안한다.

하지만 가난한 처지에 녹음 스튜디오를 빌리는 건 쉽지 않은 일. 음악계에서 잔뼈가 굵은 덴은 현장녹음에 도전하기로 하고 뉴욕의 뒷골목, 지하철승강장 등 거리 곳곳을 누빈다. 덴과 그레타가 이어폰을 한쪽 귀에 나눠 끼고 뉴욕의 발거리를 거니는 장면은 베스트 컷으로 불린다.

우여곡절 끝에 제작한 데모앨범은 메이저 음반사도 사로잡게 된다. 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9대1. 즉, 수익금의 9는 음반사가 가져가고 1은 이들의 몫이다. “데모앨범에 한푼도 돈을 안산 음반사

를 쓴 스웨덴 국민작가 린드그렌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상이다. 당연히 작가 개인뿐 아니라 한국 문학계의 패가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수상 소감에선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출판사와의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출간된 ‘구름빵’이 TV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제작돼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백씨가 받은 액수는 1850만 원에 불과했다. 출판사와 맺은 ‘매월계 약’ 탓이다. 당시 신인이었던 백씨는 일정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을 이용해 얻는 수익 전부를 갑인 출판사가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 사실, 잘못된 ‘갑을 관행’이 비단 문학계 뿐일까. 부디 이번 수상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됐으면…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광주시립예술단 국악프로그램 유튜브 통해 안방 전달

문예회관 GAC 채널 9일 중계

광주문화예술회관(성현출 관장)의 유튜브 채널 ‘GAC 안방예술극장’이 9일 오후 2시·3시 광주시립예술단의 국악프로그램으로 안방 문을 두드린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날 2시 ‘오봉산 타령’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미진, 권다혜, 최진경 단원이 가야금 3중주로 선보인다. 두 번째 곡은 생활을 위한 ‘기차길 옆 작은 꽃’으로 오영미(생황), 이정숙(가야금) 단원과 문경미 객원연주자(신디)가 함께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가야금과 대금을 위한 ‘매나리’로 김한아(가야금), 송선명(대

금), 이왕제(장구) 단원의 연주로 선보인다.

같은 날 3시부터 진행되는 광주시립창극단의 무대는 이정주 단원의 사회로 시작된다. 첫 무대는 ‘홍보가’ 중 ‘홍보 매 맞는 대목’ (소리 방운수, 고수 이명식)으로 장식하며 이어 ‘거문고, 해금 병주’ (거문고 김태래, 해금 이소리, 장구 김준영)를 공연한다.

마지막 순서는 ‘얕은반 사물놀이’로 팽과리, 장구, 북, 징 등 네가지 악기로 무대를 꾸민다.

9일 오후 7시에는 ‘김영옥&이효주 콘서트’ 실황을 중계한다. 일정 및 자세한 공연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사업’ 공모

작가회의, 60곳 선정 24일까지 접수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3회째 실시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문학 수요자 확대와 작은 서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문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 진흥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문학거점서점 20개소와 작은서점 40개소에 작가 인건비, 공간대관료,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이다. 문학거점서점에서 문학코드네이터로 활동할 상주 문학작가(20명 내외)에게는 월 200만 원 급여를, 작은서점에서 활동할 파견 문학작가(40명 내외)에게는 월 60만 원(2회) 인건비를 지급한다. 문학거점서점과 작은 서점에는 대관료 및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로 각각 80만원, 7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곳은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는 코로나 19에 대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작가회의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글로브윌’ 대체할 우리말 ‘의료용 분리벽’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글로브윌’과 ‘다크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의료용 분리벽’과 ‘지하웹’을 선정했다.

‘글로브윌’은 의료진이 검사를 받는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벽에 의료용 장갑을 설치한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웹을 뜻하는 말로, 일반

적인 방법으로는 서버나 접속자 등을 찾을 수 없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됐다.

이번 대체어 선정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결정됐다.

새말모임은 국어전문가 외에 교육,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매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변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방·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천상일월대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문신신속배달
☎ 062)430-5342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김 동 일 쉼 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 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충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오픈!! 정성과세로운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심함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업가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팡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값고 진한 곰팡의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 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매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

천 을 귀 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